

죄는 감사의 결여

이나시오는 자서전에서 한때 자기의 죄스러움에 대한 지독한 세심증으로 인해 극심히 시달렸던 사람으로 스스로를 묘사한다. 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유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나 결국 하느님의 자비에 자신을 내어 맡겨야 했다. 그때 그는 죄를 두 개의 프리즘을 통해 더 잘 조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째, 죄란 끊임없이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결여로 볼 수 있다. 둘째, 죄는 내 생명의 하느님이라고 백하는 분을 향한 경외심의 결여로 볼 수 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 이 세상은 고통과 악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마음 안에 무질서를 느낀다. 우리는 종종 하느님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거센 유혹을 받는다. 이러한 무질서를 그리스도교에서는 죄라고 부른다. 죄는 복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죄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치유하시려는 세상의 병마이며 우리는 원수인 죄를 쳐부수라고 부름받았다. 그런데 이 죄란 도대체 무엇인가?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묵상할 때면 종종 죄책감과 자기반성의 늪에 빠져 버린다.

죄에 대한 이냐시오의 태도는 매우 획기적인데, 이는 그의 영적 통찰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는 죄를 무척 진지하게 받아

들인다. 또한 우리가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대면하기를 바란다. 심지어 우리 죄를 깊이 묵상하는 동안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을 은총으로 청하며 기도하라고 한다. 그러나 각 개인이 죄에 대해 가지게 되는 이러한 반응은 은총의 결과이다. 하느님이 주시는 다른 모든 선물처럼 이 또한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냐시오는 늘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맥락 안에서 죄를 바라본다. 죄는 본질적으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신수련의 제1주간은 이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묵상하는 데에 온전히 쓰인다. 이냐시오는 우리에게 죄를 이해시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죄는 악이라는 신비의 일부분이고 지성으로는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냐시오는 우리가 죄를 마음으로 알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은총을 청하고, 하느님께서 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라고 구해야 한다.

이냐시오는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객관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게 한다. 우리는 하느님을 거역한 천사의 죄를 본다. 모든 피조물처럼 천사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대한 자유로운 응답을 선택할 수 있었다. 어떤 영들은 하느님을 배척했고 그 결과로 하느님께서 나누시는 생명을 잃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다음

우리는 인류의 원조인 아담과 하와의 죄를 묵상한다. 그들은 하느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기보다는 스스로가 신이 되기를 선택했다. 마지막으로 이나시오는 하느님보다는 자신을 우선적으로 확고히 선택하는 한 인간의 대죄를 객관적으로 숙고해 보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단 한 번의 자유로운 선택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 죄의 끔찍함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하는 숫자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면전에서 드러난다.

죄의 객관적 실체를 이렇게 살펴보고 난 후 우리는 곧 자신의 개인적 죄를 묵상한다. 그러나 이나시오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상상력을 사용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현존 앞으로 나아가라고 한다. 죄에 대응하여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숙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이 바로 우리가 죄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맥락이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이 죄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인 것이다. 죄의 “얼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얼굴에 반영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느님 사랑의 눈부신 빛 가운데에서 죄의 끔찍한 실상과 우리 자신이 지은 죄가 가져온 부끄러운 현실을 묵상하게 된다. 이나시오

는 다시 한 번 끈질긴 질문을 제기한다. 이 질문은 이나시오의 영향을 받은 영성 전반에 걸쳐 울려 퍼지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어떻게 응답하는가?’이다.

이나시오는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와 악의 역사를 하느님의 선하심에 비추어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대한다.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을 배척한다 해도 우리를 여전히 축복하신다. 성인들과 천사들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땅이 우리를 집어삼키지도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하늘, 태양, 달, 별, 자연, 과일, 새, 물고기와 동물과 같은 하느님의 웅대한 피조물의 풍요로움을 누린다. 율법이나 계명을 어기는 것보다 감사의 결여가 더 큰 죄이다. 죄는 하느님께 대한 아카타미엔토(acatamiento)를 거스르는 것이다. 아카타미엔토는 스페인어로 “애정 어린 경외”를 뜻하는데, 하느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 이나시오가 즐겨 사용한 단어들 중 하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주시는 엄위하신 하느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는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안다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죄를 짓기에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도 많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자고 초대해 주시는 하느님께 응답할 수 있다. 이는 이나시오 영성이

지니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이다. 때때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행위를 정화”해야 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이냐시오가 영신수련의 제1주간에서 죄로 인한 슬픔과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결심을 함께 아울러 놓은 이유이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간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 성숙해 가면서 죄에 대한 우리의 민감성도 커진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부당하게 대하며,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지르는지,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는지를 점점 더 알아차리게 된다. 우리 자신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기를 더욱 간절히 원하게 된다. 사람들은 종종 영성 생활을 갓 시작했을 때보다는 진보했을 때에 고해성사의 진가를 알아보고 고해성사에 대해 더욱 감사해 한다. 이것이 바로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느꼈던 것이다. 이 젊은이는 회개했다. 자신의 삶을 바꾼 것이다. 그렇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픔에 빠져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더욱 절실히 깨닫고, 용서를 청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으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연습까지 하면서 준비해 둔 참회의 말을 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죄와 용서를 다룬 복음서의 중요한 이야기들 중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이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의 일화가 있다. 죄인으로 알려져 있던 여자 한 명이 그 자리에 들어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발랐다. 죄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접촉하는 것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바리새이에게 예수님은 그 여자가 스스로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알고 있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루카 7,47)

그 여자는 창녀였다. 매춘은 구약성서에서 죄를 상징한다. 모는 죄가 일종의 매춘이다. 돈에 팔린 사랑, 사람과 사물로 그릇되게 이끌린 사랑, 하느님의 자리에 앉혀 놓은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하는 선택 등이 바로 그런 종류의 죄이다. 이러한 비극적 실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슬픔에 잠겨 간절히 용서를 구한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쇄신한다. 이뿐 아니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훨씬 더 잘 받으며 다른 사람을 훨씬 더 잘 용서할 수 있게 된다.